



꽃산디레도넬

정기간행물 등록 12호

www.uriseed.com

Vol. 33

등록번호 : 027100007 등록일자 : 2009년 8월 7일 발행일 : 2008. 10. 1 간행 : 제102호 발행처 : 우리씨앗 편집인 : 박광정 편집 : 박광정 발행소 : 경기도 이천시 호가면 송곡리 696 발행처 : 우리씨앗 주소 : 송파구 가락동 90-3 제일모아빌딩 617호 TEL : 023302-9589-8 FAX : 023302-1955



특집 지역축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축제 공화국이다. 지자체가 시 행되면서 그 모습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1990년대 초만 하더라도 600여개이던 축제가 지자체가 활성화되면서 각 지역마다 너도나도 새로운 축제를 만들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700여개로 늘어났다니 현재는 900여개에 가까운 지역축제가 이곳 저곳에서 선을 보이기에 이른 것이다. 물론 새로운 축제가 만들어지면서 기존의 축제 중 인기 없는 축제는 사라지기도 했고 일부는 명칭과 내용을 변형하기도 했지만 새로 마련되는 축제의 양에 미칠 수는 없었다. [열린리트2000 제3권]

이들 축제의 성공요인은 사용되는 예산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콘텐츠에 있다. 축제는 연속적이고 심오한 필요가 없다. 참가자들이 만족 즐기고 체험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이제 일방적으로 보여주고 홍보하는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 참여하여 만져보고 느끼게 하는 쌍방향행이 가능한 교감의 시대다. 이제 우리 축제는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품격개선과 서비스 향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진정으로 성공한 축제의 기본 패러다임은 콘텐츠가 확실한 경우이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1회성의

축제는 효과는 큰 것 같지만 지역의 경제적 효과와 감동은 떨어지게 되어있다. 많은 경우 구조물이나 꽃탑, 폭은 요란하고 화려한 연출이 큰 인기를 얻는듯 하지만 감동은 없고 고비용, 확인된 지역축제를 낳아 차별화 되지 못하고 신선감이 떨어져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다. 따라서 쉽고, 보는 것만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참여하는 확실한 콘텐츠가 어우러져 있는 축제가 성공하게 된다. 성공한 축제들은 이러한 시장원리를 인식하여 지역

진정 성공한 축제의 기본 패러다임은 콘텐츠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을 살리는 주력산업으로 육성했다. 일부 유명한 축제들은 이미 지방자치단체 연간 수입의 3~4배를 넘는 경제 효과를 누리고 있다. 축제 경제학이라는 용어가 생겨난 것도 이 때문이다.

때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축제 슬로건에 걸맞은 규모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제 축제의 숫자는 더 줄이고 규모는 커우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축제는 마케팅과 고객감동 없이 불가능하다. 끊임없이 설득하고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이익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그들이 축제의 소중한 요소이며 또 다른 고객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축제는 지역경제의 액세서리가 아닌 문화와 산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문화적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고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산업을 만날 수 있다. 가슴 설레는 축제의 즐거움이 가득한 지역축제의 모습이 미래의 성장 동력이며 경쟁력이다. ☺

Contents

- 특집 1 지역축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목차 있는 지역축제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용어의 이해 1,2,3면
- 스포트라이트 4면
- 대표적 조정식물군 5면
- 2008년 관상집종 6,7면
- 현상이토크 8면
- 현상이토크 9,10,11면
- 수종, 수형,색상의 이해/그라프 스케이트 12면
- 무늬를 시리츠/꽃자 O&A 13면
- view 기법 14면
- 종지표로제트/이생화를 이용한 생활의 지혜 15면
- 모션 뷰시물원 16면

특색 있는 지역축제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품종의 이해 ①

봄축제를 위한 가을 파종용 식물을 중심으로



요즘의 지역축제는 매우 다양해졌고 규모화 되고 있다. 특히 봄꽃축제의 경우 경관 축제가 서서히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 예로 함평 나비축제의 유채와 자운영, 포천류 식물원의 앙귀비축제, 파주심학산물곶이꽃축제의 안개초, 수레국화, 끈끈이데나물, 연채, 캘리포니아뽕피 등 이들 식물을 이용한 경관 축제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주요 요소인 이 식물들은 모두 Biennials식물이다. 이 바이ennial식물이란 가을에 파종하여 녹색상태로 겨울을 나고 이른 봄 개화와 결실을 하고는 죽는 식물을 말하는데 짧은 생을 사는 만큼이나 화려하고 강렬하게 꽃을 피우게 된다. 또 이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겨울의 매서운 온도를 겪어야만 튼튼하고 좋은 꽃을 피우는 게 특장인 식물들이다.

그러나 일부의 식물은 내한성의 문제를 일으키는 식물들이 있다. 또, 이들 식물들은 온도에 매우 예민해 이른 봄 고온이 빨리 오는 지역에서는 해마다 꽃피는 시기가 달라 축제 임정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대체로 남부지방에서만 월동이 되는 식물은 자운영, 유채, 캘리포니아뽕피, 꽃무 등을 들 수가 있는데 이 식물들을 중, 북부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른 봄에 파종하면 큰 문제없이 꽃을 피울 수가 있다. 다만 꽃피는 시기를 고려하여 파종기를 앞당기거나 늦추는 계획이 필요한데 너무 늦게 뿌려 저온감응이 되지 않거나 약할 때는 앞만 무성해지고 꽃이 피지 않거나 상태가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이들 식물은 대체로 개화기가 짧고 일시에 개화하는 특성이 있어 화려함은 좋으나 축제기간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특별한 식물자식과 이들 식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전문회사로 자리 잡은 「우리꽃」이 10년 역사를 가지면서 국내지역 축제의 특징적인 변화중 하나는 혼합종의 개발과 이들의 현장적용에 있어서 큰 노하우와 현장으로부터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앙귀비의 경우 금단의 식물이었다. 이 앙귀비를 국내에 대면적에 적용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이면서 이제는 앙귀비도 안심하고 심을 수 있는 꽃이구나 하는 선례를 남겼다. 결과로 요즘의 지역 봄축제는 물론 골짜기 등에서 폭발적인 붐을 누리고 있다. 또한 안개초를 드넓은 대지를 수놓는 봄 식물로 자리 잡게 한 것도 「우리꽃」의 성과로, 유채와 비슷하게 이른 봄에 피면서 내한성이 강하고 쓰러지지 않는 새로운 식물 연채를 개발한 것도 「우리꽃」의 성과이다. 그러나 부족함도 적지 않다. 이들 식물을 혼합해서 이용하면 효과적이라고 홍보한 결과 일부 적정한 비용을 무시한채 무분별한 혼합으로 오히려 본 작품이 나빠져 축제를 못할 지경이 되기도 하고 축제시기에 쓰러지고 엉켜 모두 죽어버리는



사태도 있다.

때문에 최근에 「우리꽃」은 축제를 바이ennial 혼합종을 개발하여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다. 사실, 우리가 2008년 가을에만 직간접적으로 추파를 바이ennial을 적용한 현장은 1000만㎡이 족히 넘는다.

바이ennial은 생육기가 아주 짧은 식물생육기의 예찰이 매우 중요하다. 꽃이 피는 시기는 물론 영양상태, 키 등에 대해서도 정확한 예찰하고 진찰하여 시시각각으로 관리를 해 줄 때 더 큰 효과와 성공축제로 연결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미 30만평에 혼합파종을 한 경남 함양 현장의 예찰을 2009년 3월 1일 나갔을 때를 가 정해 보자. 우선 겨울동안의 온도분포를 가지고 적산온도를 계산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2월 중순 매우 심한 한파가 있었고 3월 말부터 고온으로 급속하게 온도가 오른다는 예보를 확보하고 있다.

우선 A구역에 뿌려진 안개초, 캘리포니아뽕피, 앙귀비의 상태를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전체 개체수는 1㎡에 127본이 나타났고, 그중 안개초 22본, 캘리포니아뽕피 34본, 앙귀비 71본이다. 안개초는 본엽 3-5매이고 캘리포니아뽕피는 턱잎만 나온 상태로 적갈색을 띠고 있다. 앙귀비는 본엽 2-3매를 보이고 있다. 토양이 적정한 수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우선 5월 1일 본 축제날을 역산한 시점으로 60일이 남았다. 안개초는 별무리 없이 필 것이나 개체수가 너무 작은 문제점이 있고 캘리포니아뽕피는 적갈색의 턱잎만 있는 것으로 보아 2월의 낮은 온도에 장에

를 입어 생육상황이 매우 불량하고 앙귀비는 정상적인 생육으로 5월 20일쯤 개화할 것이다.

처방을 내린다면 우선 관비로 영양제를 살포하여 캘리포니아뽕피의 생육을 촉진하고 개체수가 너무 작은 안개초를 보파하여 5월 초부터 중순까지 화려한 흰꽃 개화를 유도한다. 노란색의 강조를 위하여 연채와 캘리포니아뽕피를 0.3g씩을 보파하여 4월 20일 이후 개화를 유도한다.

B구역에 튕림과 끈끈이데나물, 아이슬란드뽕피, 애성수레국화, 앙귀비가 파종된



구간이다. 건조장애를 보이고 있고 수레국화의 예성종이 많이 많이 말라있고 끈끈이 데나물의 잎 끝도 갈색으로 말라 있다. 앙귀비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우선 관수를 집중적으로 하여 1주일의 경과를 살핀 후 재 예찰과 처방을 하기로 한다. 일주일 후 앙귀비가 발아를 시작했고 끈끈이데나물과 수레국화의 속눈이 움을 띄우고 있다. 구근의 상태는 뿌리가 발생되었지만 깊이 내리지 못하고 물쳐 있는 상태이다. 다음과 같은 처방을 내린다. 4월 15일 튕림이 피는 데는 별문제가 없으나 황토 땅인 야산의 상황으로 보아 매주 1회 이상 관수를 하고 튕림이 지고 앙귀비가 늦어져 개화가 5월 말이나 되어야 개화가 될 것으로 보아 5월 20일 사이에 개화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의 끈끈이데나물은 4월말에 개화하고 5월 10일쯤 만개 가능성이 있다. 다른 식물들 뿌리만 나와서 바위고 늦어지므로 봄 개화가 빠른 안개초를 1g 추파하여 빠른 개화를 유도, 5월 20일쯤 만개할 수 있도록 한다.

매달 예찰하고 처방한다면 위와 같은 추파나 보파는 필요 없을 수 있다. 하지만 가을에 파종한 식물들이 3월 초가 되어야 새로운 생육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때부터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 ☺



꽃잔디일까? 후룩스일까? 새로운 향기식물 후룩스 “봄바람”



후룩스라고 하면 우리꽃에서 수년전부터 출시해 왔던 다양한 개량품종을 연상하게 된다. 일반 후룩스와는 달리 6월부터 10월까지 오랫동안 꽃이 피고 흰가 루방에도 강한 정점을 가지고 있고 그 화려함에 있어서도 그 어떤 소재보다 뛰어나 이제는 조경에 빠질수 없는 필수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Phlox속에는 다양한 꽃잔디와 후룩스 품종이 속에 있는데 이번에 소개하는 후룩스 품종은 Phlox속의 새로운 품종으로 꽃잔디와 후룩스의 중간형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기 쉽다. 그중 하나가 보랏빛으로 봄을 화사하게 밝혀주는 후룩스 '봄바람' (Phlox *divericata* 'Cloude of Perfume')이다. '봄바람'은 4월말경부터 마치 꽃잔디처럼 조밀하게 꽃방석을 이루며 꽃을 피우기 시작하여 5월까지 꽃이 이어진다. 은은한 보라색의 화색은 매우 고급스러워 고급조경에 안정맞춤이고 꽃이 피었을때 향기도 매우 좋은 식물이다. 키는 약 15~20cm 정도 자란다. 꽃잔디처럼 군식하거나 화기나 다른 여름, 가을식물과 혼식하면 좋다. 특히 꽃잔디

2009
특선



로 방제를 해주면 좋다. ☺

4월말경부터 꽃방석을 이루며 꽃을 피우기 시작하여 은은한 보라색의 화색은 매우 고급스럽고 향기도 좋은 식물이다

봄에서 가을까지 꽃잔디와 후룩스의 만남 후룩스 “봄맞이”

2009
특선



Phlox속의 새로운 품종인 '봄맞이' (Phlox *divericata* 'Chattahoochee')도 꽃잔디와 후룩스의 중간형으로 '봄바람'이 꽃잔디에 가깝다면 '봄맞이'는 후룩스쪽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을까. 후룩스 '봄맞이'는 진분홍색의 꽃을 피우는데 화색

을 충분히 해주는 것이 좋다.

꽃잔디, 숙근사육재 외에 봄에 꽃을 피우는 조경용으로 알맞은 소재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봄바람'과 '봄맞이'는 앞으로 유용하게 적용되어질 것이라 보인다. 또한 단독으로서의 기는 뿐만 아니라 다른 소재와

이 매우 부드럽으면서도 아름답다. 5월초부터 피기 시작하여 시기적으로 '봄바람'보다 조금 늦게 피고 개량후룩스 보다는 양쪽 피는 특성이 있어 같이 혼식하면 연속적으로 꽃을 감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키는 30~40cm정도 자라고 '봄바람'과 마찬가지로 단독으로 군식하거나 타식물과 혼식을 통해서 경관을 연출해도 좋다. 생육이 강건하고 봄에 좋은 꽃을 보기위해서는 가을에 밀가루를

의 잘 어울리는 특징이 있어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두 품종 모두 좋은 꽃을 보기위해서는 가을에 미리 식재하거나 봄 일찍 식재해주어야 한다.

'봄바람'과 '봄맞이'는 내년 봄, 조경소재의 새로운 버팀을 일으키며 봄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

5월초부터 진분홍색의 꽃을 피우는데 화색이 매우 부드럽으면서도 아름답다.



봄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꽃방석

꽃잔디 시리즈

어디서나 반드시 필요한 지피소재

2009
특선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식물이 꽃잔디이다. 꽃이 필때는 마치 꽃방석을 이루어 사람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최고의 장식물로 기쁨을 받아왔다. 기존의 분홍색 일색의 꽃잔디 시장에 우리꽃에서는 2002년 '레드킹'이라는 일반 꽃잔디보다 꽃과 잎이 모두 좋은 새로운 품종을 선보였고 선풍적인 인기를 가져왔다. 그 이후에도 계속 다양한 화색의 새로운 품종을 속속 출시하여 꽃잔디 품종의 다양화를 가져왔다.

그로인해 소비자의 구미에 맞게 품종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단일 품종으로 군식하던 패턴에서 벗어나 꽃잔디 품종만으로도 아름다운 화색을 기반으로한 디자인을 통해 다양한 연출이 가능해졌다. 빨강, 분홍, 하양, 보라 등 형태의 색채를 동시에 한자리에서 만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골프장, 아파트, 도로변, 전원주택, 식물원 등등 어디에서나 적용이 가능하고 반드시 필요한 소재이다. 또한 대부분 생육이 강건하여 아주 착박하지만 일단 어디에나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진분홍색 '레드킹' (P. *douglasii* 'Red King'), 빨강색 '레드아이' (P. *subulata* 'Scarlet Flame'), 순백의 화이트 (P. *nivalis* 'Alba'), 은은한 연보라색 '에메랄드' (P. *subulata* 'Emerald Cushion Blue')가 바로 그 주인공들이고 여기에 2008년 꽃잔디 시장의 새로운 별로 떠오를 '레드왕'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꽃잔디 '레드왕'은 활짝 웃는 듯한 별모양의 빨간색 꽃이 모여 구형을 이루는 가장 빨간 꽃잔디이다. 화색이 아름답고 전체적인 식물의 품이 좋아 기존의 어떤 꽃잔디 품종보다 아름답고 고급스러움을 자아낸다. 다른 꽃잔디와 마찬가지로 군식하거나 서로 어울려 심으면 좋고 특히 구형의 품이 좋아 라안식물로 이용해도 좋다. ☺

2009
특선



2009
특선



2009
특선

1. 꽃잔디레드왕
2. 꽃잔디
3. 꽃잔디레드아이
4. 꽃잔디레드킹
5. 꽃잔디화이트
6. 꽃잔디에메랄드

2008년 관심집중 - 4

올해 새롭게 소개되어지거나 또는 기존 품종중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넘어가야 할 숙근초들을 매해 4품목씩 선정, 연재하고 있다. 조경용 식물을 적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편집자주-

세계진출을 위한 최일선의 첨병, 로열티를 받는 식물

숙근코스모스 '우리드림' 시리즈

화색 자체가 매우 고급스럽고 장기개화 특성이 있는 '우리꽃'이 개발한 신품종

2009
특선



숙근코스모스는 몇해전부터 '우리꽃'에서 본격적으로 보급하기 시작하여 뛰어난 특성을 바탕으로 큰 사랑을 얻어키며 이제는 일반 조경에 빠질 수 없는 소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품종도 다양하여 노랑색계통의 2품종, 빨간색, 하양색, 분홍색계통의 2품종이 있는데 어느것이냐 나름대로의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계통의 품종에서 4년전부터 새롭게 분리 육성한 것이 숙근코스모스 '우리드림' 시리즈의 시초이다. 먼저 2품종을 분리육성하여 1년전 일본 동경국제원에발람회에 서 다른 제품과 더불어 첫 선을 보였는데 단연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화색 자체가 매우 고급스럽고 장기개화하는 특성이 있어 일본의 여러 원예회사들이 눈독을 들이



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지금은 일본의 한 회사와 시형제배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을 정도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계속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며 현재 추가로 6품종을 선별하여 육성중이다. 조만간 새로운 우리드림시리즈로 선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드림시리즈는 '우리꽃'에서 현재 개발중인 여러품종 중에서 최초로 로열티를 받는 품목이 될 것이 유력하다.

앞으로도 '우리꽃'은 세계를 향해 경쟁력 있는 제품을 본격적으로 선보이기 위해 계속 투자할 것이고 제2, 3의 우리드림시리즈의 탄생이 머지않은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



나왔다! 축제용 4계절 혼합종!

전천후 축제용 페스티발혼합종시리즈

봄에는 스프링페스티벌, 여름에는 섬머페스티벌, 가을에는 가을페스티벌!!

우리법면 혼합종시리즈로 한국의 대표적인 혼합종을 개발 최고의 히트작을 탄생시킨 명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간편하고 화려한 지역 축제용혼합종 시리즈를 선보입니다. 전천후 축제용 페스티발혼합종시리즈는 축제의 성격에 따라 계절별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육과 관리가 쉽고 개화기가 길어 축제일정에 상관없이 1회 살포만으로 지역축제준비 끝을 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지역 축제의 컨셉과 특성에 따라 3종을 추가 선택시스템으로 차별화가 가능합니다.

자연을 담은 사람들 ☺ 우리꽃 구입문의 : 02)3402-1686~8

봄



봄에는 스프링페스티벌 파종후 최소 45일 소요
가을에 봄에 뿌려도 축제날짜에 맞출 수 있음

spring

천상의 아름다움

숙근양귀비

행사용으로 군식 또는 포인트식물로 제격인

양귀비는 이제 '우리꽃'이 다년간 현장에서 적용하고 홍보함으로써 쉽게 다가가 수 없는 그 무엇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할 조경요소소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는 파주, 함평, 함양 등에서 지역축제의 빠질 수 없는 필수소재로 다양한 일년생 양귀비가 봄을 이루며 사용되어지고 있다. 양귀비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그 매혹적인 꽃을 보게되면 누구나 그 아름답고 화려함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사람이 없을것이다.

이번에 소개한 양귀비는 숙근성 꽃양귀비로 일반적으로 오리엔탈계와 아이슬란드계가 대표적으로 이용되어지고 있다. 오리엔탈계는 대부분 꽃이 크고 진한 화색을 자랑하며 매우 화려하다. 아이슬란드계는 꽃과 키가 작지만 은은한 화려함을 자랑한다고나 할까. 특히 봄바람에 꽃이 하늘하늘 흔들리는 모습은 더할나위 없이 좋은 풍경을 연출한다.

숙근양귀비는 봄에 행사용으로 군식하기에 더할나위 없이 좋은 소재로 행사에 맞추어 좋은 꽃을 보기위해서는 가을에 식재하거나 봄 일찍 식재하여야 한다. 그 외에는 화려함에 비해 화기가 짧아 군식하기 보다는 포인트식물로 적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여름에 고온이 지속되면 잎이 하고현상을 보이므로 혼합식재시 앞쪽보다는 중간이후에 식재하여 봄에 화려한 꽃을 감상한 뒤 앞쪽은 여름, 가을꽃으로 가려주는 것이 이상적이다. 암석가든에도 역시 봄의 포인트식물로 식재해주면 다른 봄꽃과 잘 어울리며 화사하게 빛을 내준다. 그리고 식물위에서는 양귀비열을 만들어 고객들에게 다양한 숙근양귀비 품종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숙근양귀비 식재시 유의사항은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배수가 좋은 토양에 심어야 고사율을 줄일 수 있다. ☺



아이슬란드 분홍

좋은 꽃을 보기 위해서는
가을에 식재하거나
봄 일찍 식재하여야 한다



여름



여름에는 섬머페스티벌 파종후 최소 50일 소요
시원하고 깨끗한 외색으로 여름꽃 축제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

summer

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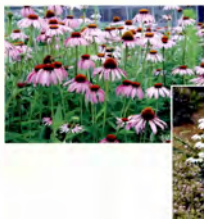
가을에는 가을하늘페스티벌 파종후 최소 60일 소요
바람과 하늘과 꽃의 양면이 펼쳐집니다

sky

우리꽃 '현장히트품종'

어떤 식물과도 조화로운 소재
에키나 시리즈

꽃에 이은 열매도 큰 관상가치
고급스런 조경이 가능합니다.



**2009
특선**

상록의 새로운 관목
로니세라

라인식물, 돌메지로 좋은
관목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2009
특선**

패랭이의 새로운 역사
상록잔디패랭이

꽃은 봄부터 가을까지, 겨울엔 상록
상록잔디패랭이는 탁월한 선택입니다.



**2009
특선**

다년생 해바라기
숙근해바라기

여름부터 가을까지 노란 물결
큰 군락 식재에 효과적입니다.

진분홍의 고급 화색
발레리안

조밀하고 아름다운 꽃
활엽수 아래는 물론 바위절개지에도 생
육이 좋습니다.

임의 색감이 좋은 소형 그라스
대사초 골든라이트

나무아래 황금색 카펫
음지에 고급스러움을 더해줍니다



우리꽃 '현장히트품종'

화색이 아름다운 장기개화형
토플 시리즈

고급 화색, 고급 느낌
정원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집니다.



**2009
특선**

코스모스 일까? 금계국 일까?
애기노랑금계국

맑고 아름다운 이색 금계국
봄부터 서리가 오는 가을까지 연속개화



**2009
특선**

선이 고운 그라스
에버골드

상록의 잎, 뛰어난 절감
화단의 점선나열이나 디스플레이용으로
제적입니다.



**2009
특선**

강렬한 화려함
숙근왜성천인국

키가 작은 여름대표식물
아름답고 화려한 꽃은 시선을 집중시킵
니다.

이색적이며 이국적인 아름다움
니포피아

이색적인 꽃대
골프장 티하우스 등 포인트식물로 제격
입니다.

일반 동자꽃보다 꽃이 진하고 화려한
붉은잎동자꽃

강렬한 화색의 동자꽃
양지 뿐만아니라 반음지에서도 생육이
좋습니다.



수중 수변식물의 이해 25

수변의 건조 사질토양에 좋은 **꽃나리**

기타식물과 혼성하면 더욱 좋은 소재

우리는 흔히 수변지라 함은 물기가 많은 지역이라고 단정하기 쉽다. 하지만 조경현장이나 자연 상태에서는 거친 건조의 사질토양이거나 사질이 아니더라도 라이너 혹은 인공의 수변이라면 오히려 매우 건조하고 척박한 공간이 많은 게 사실이다. 이런 장소에 무작정 물에 강하고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식물을 적용하면 심패하기 십상이다. 특히 이런 장소는 어떤 식물도 적용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번에는 이런 현장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생태적으로 안정된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을까?

바람직하게는 여러식물을 혼성하는 게 매우 좋는데 자연에서는 이런 지역이 장마철에는 침수가 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면 건조에도 강하고 물이 일부 침수가 되더라도 잘 적응할 수 있는 식물은 무엇일까? 만약 이런 조건을 만족할 만한 식물로는 물단풍, 금낭화, 캄캄바, 홍피, 까치수령, 오이꽃, 평의다리 등과 꽃나리가 있다. 그러나 이 품목들을 잘 살펴보면 짧은 생육기를 갖거나 꽃이 화려하지 않다. 이때 꽃나리를 이용한 혼성의 조를 짜서 식재하면 계절별로 아름답고 변화를 줄 수가 있을 것이다. 물단풍이 이른 봄 하얀꽃을 피우고 잎이 나오면 시기와 맞물려 금낭화가 피고 6월이 되면 금낭화는 누렇게 말라가고 다시 꽃나리의 밝고 화려함이 7월까지 가면 그때부터 오이꽃의 아름다움과 가는 줄기가 이색의 아름다움으로 가을까지 수놓을 수 있을 것이다.

꽃나리는 모래가 풍부하고 양분이 많은 토양을 좋아한다. 또 건조가 와도 크게 무리없이 잘 자랄뿐만 아니라 다른 식물과 서로 경쟁을 피해 가며 사는 식물로 꽃은 매우 화려하고 색도 다양해 이벤트나 화려함을 연출하기에는 매우 유용한 식물이다. 혼성의 경우는 m당 16본 정도가 좋는데 전면에 펼쳐지거나 옥시 잎이 좋은 다른 식물과 혼성할 때는 한계면에 16개정체를 3개, 5개, 8개씩으로 모아 심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1종이나 2종, 혹은 잎이 빨리 사라지는 식물과 혼식하거나 꽃나리만 심는다면 25본 정도가 적당하다.

그래스스케이프 20

아름다운 블루의 선이 연출하는 멋스러운 **억새 “파랑새”**

작은 키에 많은 꽃대, 하얀 가을 구름

최근 억새에 대한 우리의 관심도는 매우 높아졌고 많은 이들이 좋아 하는 테마가 되었다. 특히 우리가 개발한 그라나이트는 물론이고 모닝글로리, 무녀역새, 그리고 흙피무녀역새까지 우리의 고객들에게 신비한 가을을 연출하는 새로운 소재로 대접(?)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사실 앞으로 우리꽃에서 유망수출을 겨냥한 억새 개발의 성과가 조금씩 가지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3년에서 5년 내에 우리나라는 아주 좋은 그래스 정원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 초안에 독립 포인트로 하던 혹은 열적으로 심겨져 무리의 아름다움을 연출한 것에 매우 고급스러운 연출이 가능한 품종이 있다. 일반 억새에 비하면 반경도의 약 70~100cm정도 자라는 블루색의 가는 잎을 가진 “파랑새”가 2009년을 준비하고 있다.

사실 억새는 많은 경우 큰 무리를 주어 군식 하거나 뒤로 배치되어 어디에도 적용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품목이다. 특히 키가 크고 바람에 쓰러지는 종류가 많이 더욱 그렇다. 그러나 “파랑새”는 포기 전체가 하나의 콤팩트한 반달 혹은 행뿔을 형성시키는 식물 품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쓰러지지 않고 잎의 색은 파랑색으로 가을이 선이 아주 멋스럽다. 또 포기가 조밀해 꽃대가 매우 많이 피고 하얀의 화색이 더욱 돋보이는 품종으로 가을하늘의 하얀 깃털구름을 연출할 수 있다.

병충해는 거의 없고 토양 또한 별로 가리지 않아 특별한 관리보다는 연출의 기법이 더 중요한 품종이다. 독립의 포인트식물로 심기 위해서는 큰 포기를 심는 것이 좋으나 유통되는 포트묘의 규격이 분얼로 보면 2~5분얼 정도이므로 최소 5포트는



함께 심는 것이 효과적이다. 군식을 한때는 정화한 간격으로 열식하는 것이 좋은데 이때도 4포트로 한포기로 합치하여 m당 6포기 혹은 9포기로 심는 것이 유리하다.

2009
특선

무늬중 시리즈 26

업그레이드 고급소재

상록의 검은 초콜릿 라인 **맥문동 “흑룡”**

군식은 물론 분화용으로도 매우 좋은 고급종

2009
특선

“우리꽃”에서 맥문동 “흑룡”을 증식하기 위해 거의 5년을 정성을 쏟았지만 나 혼자 재배 즐기는 귀한 품종이 되어 있다. 맥문동 “흑룡”은 말 그대로 겨울에도 검은색의 상록이고 여름에도 진한 초콜릿색의 참 보기드문 귀한 잎을 가진 식물이다. 아니 몇 스리움을 넣어 기르기가 있다는 표현이 낯을 찡겁다.

학명은 *Ophiopogon planiscapus* ‘Nigrescens’로 쓰는데 맥문동의 *Liriope platyphylla*와 속명까지 달라 완전히 다른 식물로 분류된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애란(*Ophiopogon japonicus*)으로 부르는 식물과 같은 속의 식물로 좀더 가

까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꽃은 피지만 색이 약간 들어간 하얀의 꽃을 피우는데 맥문동과 같은 아름다움은 없어 오히려 잎이 주 관심 포인트이다. 애란과 같이 내한성은 맥문동보다는 약한데 오히려 애란에서는 월동가능하고 음지에 잘 자라며 공중습도가 높은 곳을 좋아 한다. 겨울 추위와 함께 건조가 지속되면 잎끝이 마르는 현상이 있는데 주의를 요한다.

음지의 라인식물이나 분양을 표현할 때 그리고 표시종 혹은 혼합식재시 포인트식물로 매우 유리하고 분화, 분경용으로도 매우 좋은 소재이다. 토양은 비옥한 곳을 좋아하고 병충해는 별로 문제가 없으나 고온 여름철 식재시에 맥문동과 같은 방법으로 뿌리의 흙을 완전히 덮고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아무렇게나 심으면 마디부위가 잘 썩어 고사하는 경우를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맥문동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귀하게 다루어야 할 식물이다. 생육지반 좋은 토기법들은 대체로 좋아 라인으로 할때는 10cm간격으로 심고 군식할 경우에는 25~36본이 적당하다.



Q 야생화를 종자로 파종하면 언제 꽃이 피나요?

A 야생화(다년생)는 파종한 이듬해에 꽃이 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늦여름이나 가을에 개화를 하는 일부(종소,산국,부처꽃) 식물들 중에는 이를 봄에 파종을 하면 개화를 하는 식물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듬해에 개화를 합니다. 일년생과는 다르게 어느 정도 뿌리가 성장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늦어도 가을을 해서 겨울을 날 정도로 성장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이듬해에 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월 이전에 파종을 하여 발아를 시키는 것이 좋으며 이듬해 이른 봄에 퇴비를 많이 주는 것이 좋습니다.

Q 구근을 가을에도 심고 봄에도 심는데 언제 심는 것이 좋을까요?

A 구근은 우리나라의 경우 크게 심는 시기를 기준으로 춘식구근과 추식구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춘식구근은 봄에 구근을 심고 여름부터 가을까지 꽃을 피우는 식물입니다. 원래는 다년생식물인데 백합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품종들은 월동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가을에 깨내고 겨울에 보관을 하여 봄에 다시 심기 때문에 춘식구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식구근은 가을에 심어 겨울을 지나 이른 봄에 꽃을 피우는 구근을 말합니다. 따라서 구근은 식물의 특성에 따라 심는 시기를 잘 맞추어 식재를 하면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춘식구근으로는 달리아, 백합, 칸나, 글라디올러스, 크로커스, 아이리스가 대표적이며, 추식구근으로는 튜립, 수선, 무스카리, 하인스, 크로

독자
Q&A

키스 등이 있습니다.

Q 숙근초중에서 독립수로 좋은 식물을 추천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A 일반조경현장에서 야생화는 군식을 하여 군락지를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생화를 독립수로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에는 독립수로 사용할 수 있는 우수한 품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형식물로는 무녀역새, 억새 그라나이트, 억새 모닝글로리의 억새류가 종으며 중형식물로는 골드밴드, 캄캄바를 한두, 왜성 모나디, 황금배초향 등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꽃에는 무녀근고갱이가 좋습니다.

이렇게 독립수로 좋은 식물들은 대부분 잘 관리하지 않으며 식물의 형태가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생육이 너무 빨라 형태가 흐트러지는 식물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변화수로 옥상녹화를 가능한지 그리고 가격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A 결론부터 말한다면 변화수로 옥상녹화를 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

존의 시공법에 비하여 시공이 간편하며 가격도 매우 저렴합니다.

보통 옥상녹화의 경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옥상에 식재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식재기반을 잘 만들수록 식물의 적응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한 조경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보통 옥상녹화의 경우 중량의 제한과 시공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많은 비용들이 발생합니다. 이번 비용들은 대부분 식재기반을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식재기반에 비용을 줄인다면 옥상녹화의 단가는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꽃에 변화수는 위의 내용에 부합하는 식재기반이며 식물선택에 폭이 넓어 다양한 경관 연출이 가능하며 가격도 저렴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공과 관리가 간편한 변화수는 한바다로 옥상에 매트처럼 깔기만 하면 됩니다.



뷰가이드 5 박람회편-③

10.29 전북 합평군 대한민국 국향대전 : 11.23까지 국화 작품 · 분재 · 조형물 전시



제6회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전남 합평군 대동면 자연생태공원에서 2008년 10월29일~11월23일간 열린다.

행사장에는 대소형의 다양한 국화작품이 전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잠자리, 매뚜기, 여치 등 살아있는 곤충들도 볼 수 있다. 또한 국화분재 · 차 만들기, 민속놀이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도 준비되어 있다.

대한민국 국향대전은 4계절 내내 테마가 있는 관광합평조성과 2008합평세계 나비곤충엑스포공공 개최 초석을 다지기 위해 시작하였으며, 합평나비대축제와 함께 합평군을 대표하는 지역축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 ▶ 문의 : 합평군청 문화관광과(061-320-3364)
- ▶ 홈페이지 : <http://www.hampyeong.jeonnam.kr/>



10.22 전북 고창에서 세계최대 국화축제 : 30만평 300억송이 국화와 문화/체험행사



세계 최대 국화축제가 우리나라 전북 고창에서 열린다. 제4회 고창국화축제는 2008년 10월22일 부터 11월 23일까지 한달간 전북 고창군 석정온천지구에서 개최되어 30만평규모의 부지에 300억 송이의 다양한 국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해 50여만 명의 관객을 유치한 고창국화축제는 국화신물종 전시회와 전국 국화경진대회를 마련하여 국화의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국화나무심판대회, 국화꽃피기대회, 시낭송회 사연담은 신형광 들려주기, 예쁜 사진 찍기 대회, 국화꽃 목걸이 만들기, 꽃바자회 등 다양한 이벤트와 국화차 시음, 세발자전거타기, 굴렁쇠 굴리기, 날뛰기, 오재미 놀이, 캐리커처, 나도 시인 나도 화가, 산후부부 행복코너 등 체험 행사가 준비되어 있고, 마당(서정주)시 문학제도 개최된다.

행사장 주변의 관광지로는 단풍으로 유명한 선운산, 내장산, 백암사와 세계 문화 유산인 고창고인돌 공원, 문수사 예기단청 등이 있다.

- ▶ 문의 : 고창국화축제위원회 (063-564-9779)
- ▶ 홈페이지 : www.gcfestival.com

10.19 울산 북구청 가을꽃전시회 : 11.20까지 국화, 야생화, 관엽식물 전시



울산북구청 가을꽃전시회가 2008년 10월 19일 부터 11월 20일까지 울산북구청 관장원원에서 개최된다. 국화 전시회에서는 북구 신설 10주년을 맞아 어느해 보다 규모가 크고 다양한 꽃이 선보일 예정이다.

북구청 방문객들은 다름꽃, 소국, 연애꽃 등 국화와 습다리, 부처손, 무늬머루 등 야생화를 비롯해 관엽식물 등 20여종 1만여 그루의 꽃과 식물을 만날 수 있다. 또한 북구청은 원두막, 팔각정, 외양간, 물레방아 등 조형물과 청사초롱 1천 개를 설치하여 방문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이 전시회는 매년 1만명 이상이 다녀가는 울산지역을 대표하는 가을꽃축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 ▶ 문의 : 울산북구청 문화홍보과 (052-289-7550)
- ▶ 홈페이지 : <http://www.bukgu.ulsan.kr/>



종자프로젝트 14 종자로도 재배가 용이한 맥문동

종자로 재배하면 효율적인 공간활용, 인건비 절감, 식재 후 활착이 빠른 유리한 점이 있다.

맥문동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식물이다. 특히 음식에 잘 적응하고 상록 이면서도 여름의 보라꽃색이 아름다운 여러장점이 있다. 이런면에서 지피 식물중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는 품목으로 자리를 잡아왔고 아마 지피식물중에서도 가격이 제일 저렴하다는 점도 많이 이용되었던 주요 이 유중의 하나이다.

맥문동은 대부분 뿌리를 약재로 쓰는 산지에서 수경재와 보통 3-5분얼 로 조개서 유통되어왔다. 다시 말해서 종자를 이용해서 재배는 거의 이루 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재배농가에서도 시도를 거의 해오지 않아 왔다. 효율적인 공간활용과 일정한 규격의 제품을 만들기위해서 맥 문동의 종자파종을 이용한 생산을 추천해보고자 한다.

일단 105구 트레이를 이용하여 1구에 5-6알정도 넣고 발아시킨뒤 영 양제 등으로 비배관리를 잘 해준다면 충분히 그 자재로 남음이 가능하리 라 본다. 그렇게되면 노지에 가식하는 수고와 출하시 조개야하는 인력비 부담을 현저히 줄일 수 있고 트레이상에 뿌리돌림이 확실해 되어진 상태 로 나가기 때문에 현장에서 식재후 활착이 빠른 유리한 점이 있다. 또한 이들도 용이한 장점이 있다. 이런점에서 볼때 종자를 이용한 재배가 오히 려 유리한 점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그리고 '우리꽃'에서 개발한 식생가방재 벽화수예에 적용되어진 식물로 빠지지 않는 것이 맥문동인데 이 또한 200구 트레이에 종자파종을 통해 서 가능하다. ☺



트레이로 재배식재하면 빠른 활착으로 하자가 없음을 물론 식재 후 빨리 생육한다.



야생화를 이용한 생활의 지혜 6

천식.기침가래.신경쇠약.폐암 항암작용 탁월한 약초 개미취

학 명 : Aster tataricus 국화과의 여러해살이풀



꽃개미취

개미취는 국화과의 여러해살이풀로, 7~10월경에 개화하며 꽃색은 자주색을 띤다.

다른 이름으로는 자원, 소관, 열만채, 산백채, 들개미취, 애기개미취 등으로 부르며, 생약명으로는 자원(紫苑), 자원, 자영(紫英)으로 부른다. 개미취의 꽃말은 이별, 기억, 먼 곳의 벗을 그리워하리니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깨끗한 이미지를 주는 아름다운 들꽃이다.

봄철에는 어린 잎을 따서 말려 나물로 먹기도 하며, 자원(紫苑)은 봄 에 갠 개미취의 뿌리를 햇볕에 말린 것으로 한방과 민간에선 풀 전체를 토혈, 천식, 폐결핵성 기침, 만성기관지염, 이뇨 등에 사용한다.

키가 커서 다른 꽃 뒤에 심으면 아름다운 꽃을 감상 할 수 있어 좋으 며 연밭이 잘 드는 계곡 주변이나 깊은 산속의 풀밭 또는 습한 곳에서 도 잘 자란다. ☺

활용법

- 취나물의 하나로서 흔히 채취되고 있으며 이른 봄에 개미취의 부드러운 잎은 주로 나물로 만들어 식용을 하는데 많이 먹으면 얼굴이 부드 러워지고 윤기가 나며 아름다워진다고 한다.
- 여성들 중에 변비와 생리통이 겹쳐 있다면 개미취를 달여서 먹거나 나 물로 꾸준히 먹어도 좋다. 한겨울에 된장으로 나물국을 만들어 먹어도 좋으며 변통을 용이하게 해주어 변비개선에도 좋다.
- 감기로 인해서 목이 아프고 입안이 마르는 증상이 있을때에는 한여름 등달에서 잘 건조한 개미취의 꽃을 약한불로 달여서 음용수로 사용하 면 매우 좋고 예전에는 폐렴에도 자주 사용하던 약초이다.
- 개미취의 전초는 살충효과가 있어 옛날에는 잘게 썰어서 외양간, 돼지 우리, 화장실 등에 넣어서 살충제로 쓰기도 하였다.

농업적 경관, 휴식, 낭만이 있는 곳, **포천뷰식물원**

제1회 국화향기 역사바람 가을축제 시작~

이 코너는 경관식물원을 표방하는 포천뷰식물원의 월별 주요 경관과 식물원 내의 이벤트 및 진행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편집자주—



올해 늦장마는 유난히도 폭우성 장마가 많아 식물들과 직원들도 복귀 작업에 힘을 많이 쏟았다. 장마로 인해 쓰러진 아스타, 다알리아, 접시꽃 등을 일으켜 세워주는 한편 적당히 잘라주고 유실된 동선을 보수하는 등 구슬땀을 흘린 9월이었다. 그리고 이번 추석에는 인절미 떡매치기, 옷놀이,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가 곁들여져 입장객들의 사랑을 받았다. 9월에는 국화 적심을 두차례하고 아스터를 세워주고 후록스, 속근코스모스, 아스타 등의 꽃대를 잘라주어 다시 한번 개화를 유도하였고 의자 등 편의시설도 새롭게 도색하고 흥미있는 이벤트 준비와 사진작가, 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10월 3일부터 국화향기 역사바람 가을축제가 포천뷰식물원을 뜨겁게 달구었다.

때를 맞춰 국화, 역사, 벚베나, 다알리아, 해바라기가 아름답게 피어 축제 분위기를 연출해 주었다. 특히 양귀비 들이 보라색 벚베나 물결로 바뀌어 탄성을 자아내게 하였다. 또한 역사꽃과 아스타도 선이 아름답게 피어 KFS 뉴스 영상에도 소개 되었다.

가을 축제기 시작되는 첫날인 10월 3일 '제3회 사진경연대회 수상작'이 있었다.

이철화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수상자들에게 수상을 축하하고 좀 더 권위 있는 대회로 발전시킬 것을 약속하면서 식물원과 운명을 같이 해주신 것을 부탁하였다.

양철호 심사위원장의 수상자에 대한 자세한 심사평을 해주고 난 다음 가족들과 함께 식물원에서 준비한 참판오리를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마침 박관우 고래대 교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참여해 자리를 빛내 주셨다. 수상작의 모듬이 되기도 하였던 분의 세스폰 찬조 연주까지 곁들여져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가을 축제 중 인기가 높았던 머거리는 뷰식물원에서 자체 개발한, 오리에 허브와 연 가루를 넣어 만든 '유독과 야의 켈프 연오리 참판구이'가 교회 등 단체에서 인기를 끌었다.

주말마다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삼승식 강연을 하였으며 세스폰 연주, 풍선아트, 페이스 페인팅, 보물찾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실시하여 입장객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다. 단체 입장 시에는 휴대타이프인 메가폰으로 식물원 가이드를 재미있게 해주었다. 특히 가족과 함께 보물찾기와 노인이나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키트 태워 주기의 반응이 무척 좋았다. 키트를 타고 고파리우는 할머니와 환호성을 지르는 어린이들을 보면서 직원들까지 망달아 흐뭇하였다.

유치원에서 어머님들과 함께 소풍을 와서 키트로 안내를 받고 맛있는 점심은 먹은 다음 비누 만들기과 천연염색을 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의 인기 또한 좋았다.



양철호 심사위원장



역사체험



페이스페인팅



유사친한 수상자들



전다량장

포천뷰식물원
The View Botanic Garden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유동리 441
안 내 : 031) 534-1136
서울사무소 : 02) 3402-1686~8